



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 소폭 증가

최 원 선임연구원

-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10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모두 늘어남에 따라 전월대비 1조 1,400억 원 증가한 109조 7,000억 원을 나타냄.
 -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9,000억 원 증가한 74조 9,000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, 보험계약대출이 4,500억 원 증가한 45조 9,000억 원, 주택담보대출이 4,100억 원 증가한 22조 5,000억 원을 나타냄.
 - 기업대출 잔액은 34조 8,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2,300억 원 증가하였는데, 중소기업대출은 23조 2,000억 원으로 2,000억 원 증가한 반면, 부동산 PF대출은 5조 6,000억 원으로 400억 원 감소함.

-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인 0.81%를 유지함.
 - 가계대출 연체율은 0.54%로 전월대비 0.01%p 상승하였는데,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.69%로 0.01%p 상승,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.48%로 0.01%p 상승함.
 - 기업대출 연체율은 1.39%로 전월대비 0.01%p 하락한 가운데,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.05%로 0.02%p 하락한 반면,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6.30%로 0.03%p 상승함.

- 금감원은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한 가계보험 계약대출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함.
 - 한편,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건전성 지표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임.

(2012년 10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, 금감원, 12/24)